

지 평 의

지 속 가 능 한 미 래 를

위 한 길

법무법인(유한) 지평 대표변호사 윤성원

지속가능성은 모든 기업과 조직이 지향해야 할 경영 철학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2019년, 국내 로펌 최초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매년 그 실천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왔습니다. 2025년, 우리는 보다 성숙해진 자세로, 우리의 철학과 실천을 이 보고서에 담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고객 중심의 전문성, ESG 경영의 동반자

지평은 고객의 지속가능한 경영 여정을 함께 설계하고 실행하는 법률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ESG 리스크 진단, 글로벌 인권 실사, 공급망 규제 대응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객사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권 및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자문을 제공하며, 국제사회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조직문화, 진정성과 포용의 실천

우리의 첫 번째 약속은 '구성원이 행복한 로펌'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정한 채용, 구성원의 다양성과 포용,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교육체계 등은 지평의 핵심 문화입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이라는 가치가 경쟁력이라는 믿음 아래,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성장하며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전문성의 확장

지평은 단지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률가로서 사회를 향해 무엇을 책임질 수 있는지를 묻고, 그 답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로펌입니다. 인권경영 법제화, 공익소송, 사회적기업과의 파트너십 등은 지평의 공익적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지 이타적인 시도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로펌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환경을 위한 작지만 확실한 변화의 실천

우리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조직 전체의 문화를 바꾼다고 믿습니다. 폐이퍼리스 오피스, 친환경차량 전환, 친환경 세미나 운영, FSC 인증지 사용 등 실천 가능한 환경정책을 꾸준히 확산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SG는 선언이 아닌 실천입니다. 그리고 실천은 습관이 되어야 지속됩니다.

선도적 법률가 공동체로서의 책임

지평은 이제 ESG와 지속가능성,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아시아의 대표 로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신뢰와 전문성, 그리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더 깊고 넓은 사회적 기여를 이어가겠습니다.

2025년,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이 보고서가 단지 '성과'의 기록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에 함께 서 있는 모든 분들과의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